

# 대학생들의 결혼 및 자녀 가치관과 성태도 관련성 연구

주영희\*, 정은숙\*\*, 심문숙\*\*\*

김천과학대학교 간호학과, 경북대학교 간호학과\*, 건양대학교 간호학과\*\*\*

## The relationship of College students' value on marriage, children and sexual attitude

Young-Hee Ju \*, Eun-Sook Jung \*\*, Moon-Sook Shim \*\*\*

Assistant Professor, College of Nursing, Kimcheon Science College \*

Assistant Professor, Dept. of Nursing, Kyungbok University \*\*

Associate Professor, Dept. of Nursing, Konyang University \*\*\*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대학생들의 결혼 및 자녀에 대한 가치관과 성태도를 파악하고, 상호관련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연구방법은 K지역에 소재하는 2개 대학교 학생 1,057명에게 2011년 4월25일부터 5월31일까지 설문지를 배부하여 조사하였다. 연구대상자의 결혼가치관에 따른 성태도는 개인보다 가족관계 우선시, 독신의 삶, 결혼생활 부담, 결혼을 보통사람들이 하는 나이, 사귀는 사람과 결혼, 자유로운 성관계, 자녀가 있어도 이혼에 따라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가치관에 따른 성태도는 자녀를 낳아야만 부부가 사회적 인정, 경제적 노후의존, 부모의 꿈 실현, 가문계승, 사회적 의무, 자녀의 필요성에 따라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가치관 중 성태도와 유의하게 순 상관관계를 나타낸 변수는 개인보다 가족관계 우선시, 결혼시기이였으며, 역 상관관계를 나타낸 변수는 마땅한 상대를 만나지 못하면 꼭 결혼할 필요가 없었었다. 자녀가치관 중 성태도와 유의하게 순 상관관계를 나타낸 변수는 자녀를 낳아야만 부부가 사회적 인정을 받음, 경제적 노후의존, 부모 꿈 실현, 가문계승, 사회적 의무이였으며, 역 상관관계를 보인 변수는 부모로써의 가치, 자녀는 반드시 있어야 함이였다. 결론은 성태도와 결혼관, 자녀관은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이에 따라 저출산 고령화시대에 살고 있는 가임기 청소년의 성태도 변화에 따른 결혼관과 자녀관을 위한 다양하고 건강한 접근전략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주제어** : 결혼, 자녀, 가치관, 성태도

**Abstract**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correlation of the Value on marriage, Children and Sexual attitude in college students. Method:Data were collected using a structured questionnaire that consisted of Value on marriage, Children and Sexual attitude from 2 colleges located in K-city. Final participants included 1,057 students. Results: Sexual attitude related to the value on marriage were differences in the family relationships first, to a celibate life, concerned about marriage, to get married at the age, should marry him, sex regardless, divorce can be even if child, Related to the child were necessity of children, to help economically, to fulfill the dream of parents, to put the house line, duty to society. Sexual attitude were inverse correlated to the religion, grade, valuable things as parents, necessity of children. Conclusion: Sexual attitude for college students significantly related value on marriage and children. In order to value on marriage and child according to the change on sexual attitude is recommended diverse healthy strategy in college students.

**Key Words** : Value on Marriage, Children and Sexual Attitude

Received 8 August 2013, Revised 30 August 2013

Accepted 20 September 2013

Corresponding Author: Eun-Sook Jung(Dept. of Nursing, Kyungbok University)

E-mail : jes4420@naver.com

ISSN: 1738-1916

© The Society of Digital Policy & Management. All rights reserved.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 1. 서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생활환경은 핵가족의 출현, 친족체계의 붕괴, 의학 및 산업의 발달로 성에 관한 무분별한 정보와 지식이 범람하고, 이로 인하여 건강하지 못한 성이 상품화되어 인터넷을 통해 빠른 속도로 확산 되므로써 전통적인 성 금기 의식 및 혼전 성행동에 대한 규제를 약화시키는 환경이 되고 있다 [1]. 또한 서구의 개방적인 가치유입과 피임기술의 향상 및 여성역할의 변화에 따라 여성의 성태도도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 [2]. 성에 대한 호기심이 많은 시기에 음란매체 등을 통해 과장된 내용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알려주어 성에 대한 책임과 인식이 아직 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성에 대한 왜곡된 지식을 주고 불건전한 성태도를 형성한다는 점 [3] 에서 매우 염려스러운 일이라 할 수 있다.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혼전 성에 대한 태도 및 행동에 관한 외국의 선행연구 [4] 는 남녀 대학생의 혼전 성에 대한 허용기준이 감소하여 최근에는 성에 대한 남녀의 태도가 거의 유사해졌다고 보고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의 경우 남성에게 보다 많은 성적 자유를 허용하는 관행인 이중기준이 최근 유사해지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은 남성이 여성보다 성에 대해 허용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5-6]. 성태도는 성에 대한 느낌과 생각, 가치관 및 성욕구 및 성행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인간이 육체적, 정신적, 사회적 성의 기능을 바탕으로 성에 대해 개인이 가지고 있는 이념, 지각, 성향 등을 의미한다고 할 때 성에 대한 태도는 곧 결혼관에 영향을 미칠수 있다고 할 수 있다 [7].

우리나라는 산업화 이후 젊은이들의 결혼 가치관이 변화하고 있다. 부모들의 늘어나는 이혼율과 더불어 젊은 세대들은 점차 법적인 결혼을 기피하고, 동거를 선호하고 있으며, 독신율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결혼 가치관의 혼란은 다양한 결혼문화가 나타나고, 새로운 가정의 탄생을 알리는 결혼의 미래는 앞날을 예측해 보기 어렵게 되었다 [8]. 요즘 이혼가정, 미혼모가정, 재혼가정이 많아졌고, 결혼 이후의 불륜에 대한 적극적인 옹호, 결혼 이후 애인사귀기 등이 급증하고 있다 [9]. 결혼을 하여 가족을 구성하는 것을 당연한 생애과정의 하나로 이해하던 기성세대와 달리 지금의 젊은 세대는 결혼을 선택의 문제 혹은 의사결정의 문제로 받아들이고 있다 [10]. 즉 젊은 세대에게는 결혼이 인생의 당위적 또는 필

수적인 것이라고 보는 관점에서 개인의 기호 또는 선택으로 보는 태도로 바뀌고 있다고 본 선행연구 [10] 에서와 같이 결혼과 함께 자녀 출산도 부부의 중요한 의무 및 역할 수행으로 인식하였고, 자녀는 노동력의 창출과 가계 계승, 노후 부양 등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녔다. 성인이 되면 결혼이라는 통과의례를 통해 자식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고, 부모의 가부장적 통제로부터 독립하는 절차를 받게 된다. 결혼을 통하여 새로운 가정을 창조하며, 가정 속에서 성숙한 인간으로 성장하고 다음 세대를 재생산한다. 결혼 가치관은 개인적인 신념이나 가치관, 우리 사회에 널리 퍼져 있는 다양한 가치규범들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다. 결혼관에 관한 개인 간의 차이나 세대 간의 차이는 가족 내에서나 사회에서 갈등을 심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 [10]. 가정의 생산적 기능보다는 소비적 기능이 부각되는 산업사회의 가정에서는 자녀가 오히려 부부의 양육부담을 가중시킴으로써 소자녀관이 형성되고 있다. 1980년대만 하더라도 우리사회에서 자녀를 갖는 의미는 가문의 대를 잇고, 다음 세대를 형성하며 노후 대책을 위한 것 등으로 나타났으나 1980년 후반으로는 양육자체의 만족감이나 자아확장, 인생에 새로운 자극과 가치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성의 경제활동이 증가하면서 자녀출산 및 양육이 가정생활과 직장생활의 양립에서 갈등을 유발할 수 있으며, 그 결과 노동시장에서 여성의 경쟁력과 지위가 낮아져 출산과 양육을 기피하는 현상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9].

요즘 젊은이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자신이기 때문에 ‘아이에게 매이면 자기 자신의 시간을 못 갖게 되므로 아이에게 들어야 할 돈, 노력, 정성을 자기 자신에게 쏟고 싶다’고 말하고 ‘나이를 더 먹기 전에 성공하기 위해서’ 자기계발을 열심히 해야 하고 ‘가만히 있으면 밀려난다.’ 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 [11]. 이렇듯 젊은이들이 결혼에 부정적인 가치관을 갖게 되면 저출산 등 많은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12]. 우리나라는 최근 성개방의 풍조가 급격히 확산되면서 성에 대한 문제가 사회 문화적으로 표면화되고 있다. 또한 대중매체를 통한 성적 자극이 만연함에 따라 성에 대한 태도는 더욱 적극적이고 개방적인 양상을 띄게 되었다. 인터넷의 일반화로 무분별한 정보 보급과 퇴폐문화의 접촉은 성에 대한 호기심과 왜곡된 인식을 갖게 하고 있다 [13]. 성에 대한 태도는 우리나라의 전통

적인 유교문화의 영향으로 성을 드러내놓고 이야기하지 않으며 감추어지고 은밀한 방식으로 인식되고 음성적이며 폐쇄적인 방법으로 전달되는 부분이 많다 [14]. 따라서 대학생들의 개방적이거나 보수적인 성태도는 결혼관 및 결혼의 필요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 즉 자녀 가치관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사료된다. 이에 본 연구는 가까운 미래에 결혼을 하고 자녀를 갖게 될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성태도, 결혼 및 자녀관을 살펴보고, 이러한 가치관에 영향을 주는 사회·인구학적 변인을 분석하고자 하며, 서로의 관련성을 규명하여 대학생의 성태도, 결혼 및 자녀 가치관 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

## 1.2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대학생들의 일반적 특성, 결혼 가치관과 자녀 가치관에 따른 성태도를 확인하고, 성태도와 상관성을 규명함으로써 청소년기의 결혼 및 자녀 가치관형성 교육을 위한 다양한 접근전략을 세우는데 기초 자료로 제공하기 위함이다.

## 2. 연구방법

###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대학생들의 일반적 특성, 결혼 및 자녀 가치관과 성태도를 파악하고, 상호관련성을 분석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 2.2 연구대상

본 연구는 지방 중소도시 K지역에 소재하는 2개 대학교에서 조사연구의 수행가능여부를 검토하여 임의 표출된 학생들에게 총 1,300부의 설문지를 배포하였다. 수거한 설문지 1,095부 중 응답이 부실하거나 무응답으로 자료처리가 불가능한 38부를 제외한 1,057부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표본의 크기는 G-Power program을 적용하여 유의수준( $p=0.05$ ), 효과크기(0.15), 검정력(95%)을 고려하였을 때, 최소 표본수가 129로 나와 본 연구 결과를 해석하는데 무리가 없다고 판단된다.

## 2.3 연구도구

### 2.3.1 성태도

성태도는 성과 관련된 제반 현상에 대한 의식 및 사고, 가치판단과 행동에 관한 반응을 말한다. 본 연구에서는 Hudson 등(1992)가 대학생을 대상으로 성태도를 측정하기 위해 개발한 도구를 Chon, Lee & Lee(2004)가 수정 보완한 것을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25문항으로 '매우 그렇다' 0점, '그렇다' 1점, '보통이다' 2점, '아니다' 3점 '전혀 아니다' 4점으로 Likert type 5점 척도로 이루어졌다. 결과 해석은 최저 0점에서 최고 100점으로 50점 미만인 경우는 성에 대한 태도가 보수적인 것을 의미하고, 50점 이상인 경우는 성에 대한 태도가 개방적인 것을 의미한다. 원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900$  이었고, 수정 개발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873$  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 = .798$  이었다.

### 2.3.2 결혼 가치관

결혼 가치관은 결혼과 배우자 선택에 대한 태도 및 가치관을 말한다(Kim & Lee, 1998). 본 연구에서는 L미래 세대의 결혼·출산 친화적 가치관 정립을 위한 종합연구 [11] 에서 고학년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사용한 결혼 가치관 설문내용을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12문항으로 '매우 찬성' 1점, '대체로 찬성' 2점, '별로 찬성 안함' 3점, '찬성 안함' 4점으로 Likert type 4점 척도로 이루어졌다.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 = .783$  이었다.

### 2.3.3 자녀 가치관

자녀 가치관은 출산과 자녀양육에 대한 가치관을 말한다. 본 연구에서는 미래 세대의 결혼·출산 친화적 가치관 정립을 위한 종합연구 [11] 에서 고학년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사용한 자녀 가치관 설문내용을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10문항으로 '매우 찬성' 1점, '대체로 찬성' 2점, '별로 찬성 안함' 3점, '찬성 안함' 4점으로 Likert type 4점 척도로 이루어졌다.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 = .757$  이었다.

### 2.3.4 자료수집 방법

자료수집은 2011년 4월 25일부터 5월 31일까지 진행되었으며, 연구자가 연구의 목적과 자료수집 후의 설문

지 관리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였다. 즉 응답한 설문지의 모든 내용은 익명이 보장되고 연구목적 이외에는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여 설명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연구목적에 이해하고, 참여에 동의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서면동의서를 얻은 후, 설문지를 배부하였다. 응답시간은 30분 정도 소요되었다.

**2.3.5 자료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WIN 17.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연구목적과 측정변수의 특성에 따라 통계 처리하였으며,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 1) 일반적인 특성, 성태도, 결혼 가치관 및 자녀 가치관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분석과 기술통계를 실시하였다.
- 2) 일반적 특성, 결혼 및 자녀 가치관의 특성에 따른 성태도의 차이는 t-test와 ANOVA, 사후검증은 Scheffe test로 분석하였다.
- 3) 일반적 특성, 결혼 및 자녀 가치관과 성태도 간의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를 이용하였다.

**3. 연구결과**

**3.1 일반적 특성**

본 연구 대상자의 성별은 남자 136명(12.9%), 여자 921명(87.1%)이었다. 학년은 1학년 336명(31.8%), 2학년 362명(34.2%), 3학년 359명(34.0%)이었다. 종교는 천주교 103

명(9.7%), 기독교 203명(19.2%), 불교 209명(19.8%), 기타가 542명(51.2%)으로 나타났다. 성태도는 보수적이다 55명(5.2%), 개방적이다 1,002명(94.8%)이었다(Table 1).

**3.2 일반적 특성에 따른 성태도**

본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성태도는 종교(F=10.893, p=.000)와 학년(F=11.623, p=.000)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즉, 대상자들의 종교가 기독교인 경우 기타나 천주교, 불교보다 성태도가 개방적이었으며, 1학년이 2학년, 3학년보다 성태도가 개방적인 것으로 나타났다(Table 1).

**3.3 결혼가치관에 따른 성태도**

본 연구대상자의 결혼 가치관에 따른 성태도는 개인보다 가족관계 우선시(F=4.885, p<.002), 독신의 삶(F=4.273, p<.005), 결혼생활 부담(F=3.314, p=.019), 결혼을 보통사람들이 하는 나이(F=11.630, p=.000), 사귀는 사람과 결혼(F=6.267, p=.000), 자유로운 성관계(F=58.841, p=.000), 자녀가 있어도 이혼(F=6.433, p=.000)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Table 2). 즉, 대상자들은 결혼이 개인보다 가족관계를 먼저 생각하지 않을수록, 독신의 삶을 즐기는 것이 우선이 아닐수록, 결혼생활에 대해 부담을 느끼지 않을수록 성태도가 개방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보통사람들이 결혼하는 나이에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을수록, 사귀는 사람과 꼭 결혼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을수록, 자유로운 성관계에 대한 생각이 부정적일수록, 자녀가 있어도 이혼하겠다는 생각이 높을수록 성태도는 개방적이었다(Table 2).

<Table 1> Sexual attitude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N= 1,057)

Variable	Categories	N(%)	Sexual attitude M(SD)	t or F	p	scheffe
Gender	Male	136(12.9)	60.2(9.68)	15.271	.000***	
	Female	921(87.1)	63.4(8.47)			
Religion	Protestant <sup>a</sup>	203(19.2)	66.5(9.39)	10.893	.000***	a>d>c>b
	Buddhist <sup>b</sup>	209(19.8)	61.9(7.90)			
	Catholic <sup>c</sup>	103(9.7)	62.7(8.31)			
	Others <sup>d</sup>	542(51.2)	62.9(7.39)			
Grade	1 <sup>a</sup>	336(31.8)	64.7(8.57)	11.623	.000***	a, b>c
	2 <sup>b</sup>	362(34.2)	62.6(8.42)			
	3 <sup>c</sup>	359(34.0)	61.6(8.83)			
Sexual attitude	liberally	1002(94.8)				
	Conservative	55(5.2)				
	Total	1,057(100.0)				

(Table 2) Differences of Sexual attitude according to value of marriage

Variable	Categories	N(%)	M(SD)	Sexual attitude M(SD)	t	p	scheffe
Family relationships first	Strongly agree <sup>a</sup>	21(2.0)		56.8(10.31)			
	Generally agree <sup>b</sup>	209(19.8)	2.9(.66)	62.1(9.10)	4.885	.002	a, c>d>b
	Prefer not agree <sup>c</sup>	655(62.0)		63.4(8.10)			
	Prefer not to strongly agree <sup>d</sup>	172(16.3)		63.1(9.78)			
Strongly agree	15(1.4)	64.9(16.95)					
Really do not need to get married	Generally agree	127(12.0)	3.1(.67)	63.3(9.30)	1.543	.202	
	Prefer not agree	610(57.7)		63.3(7.89)			
	Prefer not to strongly agree	305(28.9)		62.1(9.37)			
	Strongly agree	19(1.8)		64.4(13.55)			
Slow down or can you not get married	Generally agree	120(11.4)	3.2(.68)	63.3(7.90)	.581	.628	
	Prefer not agree	606(57.3)		63.1(8.51)			
	Prefer not to strongly agree	312(29.5)		62.5(8.99)			
	Strongly agree	10(0.9)		56.6(6.15)			
Income must be sufficient to be married	Generally agree	100(9.5)	3.2(.65)	63.0(9.25)	1.973	.116	
	Prefer not agree	580(54.9)		62.9(8.31)			
	Prefer not to strongly agree	367(34.7)		63.3(9.13)			
	Strongly agree	53(5.0)		61.3(11.36)			
For study or work, I can not get married	Generally agree	227(21.5)	2.9(.78)	62.9(8.03)	.953	.414	
	Prefer not agree	573(54.2)		63.3(8.37)			
	Prefer not to strongly agree	204(19.3)		62.7(9.46)			
	Strongly agree <sup>a</sup>	75(7.1)		61.2(10.69)			
To a celibate life, I can not get married	Generally agree <sup>b</sup>	212(20.1)	2.9(.82)	63.9(8.52)	4.273	.005	c>d>a, b>c>d
	Prefer not agree <sup>c</sup>	559(52.9)		63.4(8.13)			
	Prefer not to strongly agree <sup>d</sup>	211(20.2)		61.5(9.30)			
	Strongly agree <sup>a</sup>	45(4.3)		60.3(12.56)			
If I'm concerned about marriage	Generally agree <sup>b</sup>	173(16.4)	3.0(.73)	64.2(8.20)	3.314	.019	c>d>a, b>c>d
	Prefer not agree <sup>c</sup>	623(58.9)		63.1(8.15)			
	Prefer not to strongly agree <sup>d</sup>	216(20.4)		62.1(9.45)			
	Strongly agree <sup>a</sup>	148(14.0)		60.3(9.55)			
Ordinary people to get married at the age	Generally agree <sup>b</sup>	492(46.5)	2.3(.76)	62.3(8.37)	11.630	.000	d>c>a, c>d>b
	Prefer not agree <sup>c</sup>	372(35.2)		64.8(7.88)			
	Prefer not to strongly agree <sup>d</sup>	45(4.3)		63.4(12.09)			
	Strongly agree <sup>a</sup>	271(25.6)		61.3(8.90)			
Should marry him, if you	Generally agree <sup>b</sup>	511(48.3)	2.0(.79)	63.3(8.29)	6.267	.000**	c>b>d, a
	Prefer not agree <sup>c</sup>	239(22.6)		64.4(9.01)			
	Prefer not to strongly agree <sup>d</sup>	36(3.4)		61.4(8.58)			
	Strongly agree <sup>a</sup>	184(17.4)		67.4(8.67)			
Get married and have sex, regardless	Generally agree <sup>b</sup>	344(32.5)	2.4(.83)	65.2(7.22)	58.841	.000**	d, c, a>b
	Prefer not agree <sup>c</sup>	477(45.1)		60.5(8.04)			
	Prefer not to strongly agree <sup>d</sup>	52(4.9)		55.1(10.75)			
	Strongly agree <sup>a</sup>	101(9.6)		63.3(10.61)			
If it is better to divorce marital conflict	Generally agree <sup>b</sup>	364(34.4)	2.6(.82)	63.8(8.08)	2.422	.064	
	Prefer not agree <sup>c</sup>	468(43.3)		62.5(8.62)			
	Prefer not to strongly agree <sup>d</sup>	124(11.7)		61.8(8.82)			
	Strongly agree <sup>a</sup>	150(14.2)		64.1(10.54)			
Divorce can be, even if the child	Generally agree <sup>b</sup>	391(37.0)	2.4(.80)	63.7(8.05)	6.433	.000**	a, a>b>c
	Prefer not agree <sup>c</sup>	458(43.3)		62.5(8.31)			
	Prefer not to strongly agree <sup>d</sup>	58(5.5)		58.9(9.28)			
	Very needed	186(17.6)		63.6(9.95)			
Necessity of marriage	Needed	495(46.8)	2.2(.79)	62.9(8.35)	1.845	.118	

Variable	Categories	N(%)	M(SD)	Sexual attitude M(SD)	t	p	scheffe
Marriage Will	Usually	346(32.7)		62.4(8.35)	.483	.748	
	Not required	17(1.6)		66.1(10.22)			
	Don't-know	13(1.2)		66.9(7.76)			
	Will necessarily be	373(35.3)		63.2(8.89)			
	Will be available	491(46.5)		62.6(8.56)			
	It will not	127(12.0)	1.9(.99)	63.5(9.04)			
	It is not an absolute	11(1.0)		62.6(7.85)			
Marriage timing	Don't-know	55(5.2)		63.6(8.03)	1.712	.145	
	If I partner	207(19.6)		62.7(9.33)			
	If economic independence when the	404(38.2)	2.3(.91)	62.7(8.85)			
	When I marriageable think	404(38.2)		62.9(8.28)			
Marriageable	When Parents encouraged	5(5)		66.4(6.11)	1.721	.161	
	Don't-know	37(3.5)		66.4(7.40)			
	≤25	29(2.7)		62.7(11.83)			
	26~30	855(80.9)	2.1(.44)	63.2(8.57)			
	31~35	165(15.6)		61.7(8.44)			
	≥36	8(8)		66.3(11.99)			

### 3.4 자녀가치관에 따른 성태도

본 연구대상자의 자녀 가치관에 따른 성태도는 자녀를 낳아야만 부부가 사회적 인정(F=9.823, p<.000), 경제적 노후의존(F=5.775, p<.001), 부모의 꿈 실현(F=6.438, p=.000), 가문계승(F=9.556, p=.000), 사회적 의무(F=6.609, p=.000), 자녀의 필요성(F=3.926, p=.008)에 따라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Table 2). 즉, 대상자들은 자녀를 낳아야만 부부가 사회적 인정을 받는다고 생각하지 않을수록, 자녀를 경제적 노후의존 대상으로 생각하지 않는 경우, 자녀를 통해 부모의 꿈이 실현된다고 생각하지 않는 경우, 성태도가 개방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집안의 대를 잇기 위해 자녀를 두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경우, 자녀를 갖는 것은 사회적 의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경우, 자녀는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생각할수록 성태도는 개방적이었다(Table 3).

### 3.5 일반적 특성, 결혼가치관, 자녀가치관 및 성태도간의 상관관계

본 연구 대상자의 결혼 가치관 중 성태도와 유의하게 순 상관관계를 나타낸 항목은 개인보다 가족관계 우선시(r=.074, p<.017), 결혼시기(r=.064, p<.038)이었으며, 역 상관관계를 보인 변수는 마땅한 상대를 만나지 못하면 꼭 결혼할 필요가 없음(r=-.071, p=.022)이었다(Table 3). 자녀 가치관 중 성태도와 유의하게 순 상관관계를 나타

낸 항목은 자녀를 낳아야만 부부가 사회적 인정을 받음(r=.114, p<.000), 경제적 노후의존(r=.109, p<.000), 부모 꿈 실현(r=.136, p<.000), 가문계승(r=.155, p<.000), 사회적 의무(r=.106, p<.001)이었으며, 역 상관관계를 보인 변수는 부모로서의 가치(r=-.064, p=.038), 자녀는 반드시 있어야 함(r=-.072, p<.019)이었다(Table 4).

## 4. 논의

본 연구 결과에서 대상자들의 성태도는 94.8%가 개방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결혼 가치관은 개인보다 가족관계 우선 시, 결혼 시기와 성태도는 유의한 순상관 관계를 나타냈는데 이는 현대의 남녀 대학생들이 결혼에 대한 의미와 결혼에 대한 책임의 인식 간에 관련이 있음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선행연구 [12]에서는 결혼 가치관이 진보적일수록 긍정적인 가치관을 나타냈으며 이는 자녀관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선행연구 [5]에서는 대학생들의 성에 대해 전반적인 태도는 긍정적이라 하였고 청소년을 대상으로 연구 한 선행연구 [6]에서는 성태도 수준이 보통으로 나타나 보수적인 일면을 나타냈으며, 성에 대한 태도가 매우 긍정적이라고 보고한 연구들도 있었다 [15-16]. 선행연구 [16]에서 대학생들이 성에 대해 개방적인 태도를 가질수록 남녀평등적인 성태도

(Table 3) Differences of Sexual attitude according to value of children

Variable	Categories	N(%)	M(SD)	Sexual attitude M(SD)	t	p	scheffe
Valuable thing in life, being a parent is	Strongly agree	1(1)		69.0			
	Generally agree	25(2.4)		61.3(7.66)			
	Prefer not agree	497(47.0)	3.5(.55)	63.6(8.36)	2.263	.080	
	Prefer not to strongly agree	534(50.5)		62.4(9.00)			
Think that couples have children and I want them, but socially acceptable	Strongly agree <sup>a</sup>	95(9.0)		59.1(9.55)			
	Generally agree <sup>b</sup>	598(56.6)	2.3(.71)	62.8(7.98)	9.823	.000***	a,
	Prefer not agree <sup>c</sup>	306(28.9)		64.5(8.66)			c>b>d
	Prefer not to strongly agree <sup>d</sup>	58(5.5)		62.7(11.97)			
If there are children in the marital relationship gets better	Strongly agree	18(1.7)		60.9(10.03)			
	Generally agree	174(16.5)	3.0(.66)	62.5(8.38)	.565	.638	
	Prefer not agree	656(62.1)		63.1(8.19)			
	Prefer not to strongly agree	209(19.8)		63.2(10.24)			
Child less lonely in his old age	Strongly agree	15(1.4)		59.4(7.67)			
	Generally agree	107(10.1)	3.3(.70)	61.5(7.89)	2.286	.077	
	Prefer not agree	514(48.6)		63.4(8.11)			
	Prefer not to strongly agree	421(39.8)		62.9(9.52)			
If there are children, you may be able to help economically	Strongly agree <sup>a</sup>	49(4.6)		58.8(9.43)			
	Generally agree <sup>b</sup>	361(34.2)	2.7(.75)	62.4(8.39)	5.775	0.001***	a,
	Prefer not agree <sup>c</sup>	516(48.8)		63.3(8.11)			d>c>b
	Prefer not to strongly agree <sup>d</sup>	131(12.4)		64.5(10.74)			
It is desirable to fulfill the dream of parents through their children	Strongly agree <sup>a</sup>	253(23.9)		61.2(9.02)			
	Generally agree <sup>b</sup>	525(49.7)	2.1(.81)	63.0(8.00)	6.438	.000***	b>a,
	Prefer not agree <sup>c</sup>	222(21.0)		64.3(8.59)			d>c>b
	Prefer not to strongly agree <sup>d</sup>	57(5.4)		65.0(11.90)			
It is natural to put their children to the house line	Strongly agree <sup>a</sup>	187(17.7)		60.4(9.03)			
	Generally agree <sup>b</sup>	445(42.1)	2.3(.84)	62.7(8.04)	9.556	.000***	b>a,
	Prefer not agree <sup>c</sup>	349(33.0)		64.3(8.52)			d>c>b
	Prefer not to strongly agree <sup>d</sup>	76(7.2)		64.7(10.65)			
Having children is our duty to society	Strongly agree <sup>a</sup>	110(10.4)		59.7(8.46)			
	Generally agree <sup>b</sup>	380(36.0)	2.5(.81)	62.8(8.46)	6.609	.000***	a,
	Prefer not agree <sup>c</sup>	464(43.9)		63.7(8.43)			c>d>b
	Prefer not to strongly agree <sup>d</sup>	103(9.7)		63.7(10.15)			
Parent's life is more important	Strongly agree	6(6)		61.2(10.85)			
	Generally agree	204(19.3)	3.0(.61)	63.8(7.97)	.891	.445	
	Prefer not agree	677(64.0)		62.7(8.33)			
	Prefer not to strongly agree	170(16.1)		63.2(10.64)			
The end of the child's education should help	Strongly agree	9(9)		58.6(7.78)			
	Generally agree	125(11.8)	3.1(.64)	63.0(9.16)	.779	.506	
	Prefer not agree	629(59.5)		63.0(7.99)			
	Prefer not to strongly agree	294(27.8)		63.0(9.88)			
Necessity of children	Very needed <sup>a</sup>	311(29.4)		63.6(9.25)			
	Needed <sup>b</sup>	558(52.8)	1.9(.73)	63.2(8.29)	3.926	.008*	d>a>b>c
	Not required <sup>c</sup>	163(15.4)		60.9(8.82)			
	don't-know <sup>d</sup>	25(2.4)		64.2(7.69)			
Birth plan	Sure would like to have	449(42.5)		62.8(8.86)			
	I would like to have available	479(45.3)	1.8(.98)	62.9(8.51)	.155	.961	
	I don't want to have	63(6.0)		63.6(8.95)			
	I don't want to have no	11(1.0)		63.8(8.39)			
Number of children	Don't-know	55(5.2)		63.1(8.89)			
	1	48(4.6)		62.5(9.45)			
	2	90(8.4)	3.3(.95)	63.8(8.16)	.546	.742	
	3	585(55.1)		63.1(8.59)			
	≥4	334(31.6)		63.0(8.71)			

<Table 4> Relationship among general characteristics, value of marriage, children, and sexual attitude

Variables		sexual attitude	
		r	p
General characteristics	Gender	-.006	.856
	Age	-.108	.000***
	Religion	-.145	.000***
	Grade	-.146	.000***
Value of marriage	Necessity of marriage	-.011	.732
	Marriage Will	-.005	.872
	Marriage timing	.064	.038*
	Marriageable	-.045	.143
	Family relationships first	.074	.017*
	Really do not need to get married	-.071	.022*
	Slow down or can you not get married	-.051	.100
	Income must be sufficient to be married	.028	.360
	For study or work, I can not get married	.001	.979
	To a celibate life, I can not get married	-.023	.448
	If I'm concerned about marriage	.004	.891
	Ordinary people to get married at the age	.042	.178
	Should marry him, if you	.004	.903
	Get married and have sex, regardless	-.006	.841
If it is better to divorce marital conflict	.012	.690	
Divorce can be, even if the child	.026	.408	
Value of children	Necessity of children	-.072	.019*
	Birth plan	.011	.725
	Number of children	-.001	.969
	Valuable thing in life, being a parent is	-.064	.038*
	Think that couples have children and I want them, but socially acceptable	.114	.000***
	If there are children in the marital relationship gets better	.032	.300
	Child less lonely in his old age	.022	.484
	If there are children, you may be able to help economically	.109	.000***
	It is desirable to fulfill the dream of parents through their children	.136	.000***
	It is natural to put their children to the house line	.155	.000***
Having children is our duty to society	.106	.001**	
Parent's life is more important	-.037	.228	
The end of the child's education should help	.005	.863	

를 보인다고 하였고, 다른 선행연구 [15] 는 올바른 성 지식을 가질수록 성태도가 긍정적으로 형성될 수 있다고 하였다.

결혼 가치관의 혼란은 기형적인 결혼문화를 창출하고 새로운 가정의 탄생을 알리는 결혼의 미래는 앞날을 예측하기 어렵게 되었다. 불안정한 결혼은 가정과 사회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 또한 결혼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배우자 선택은 여전히 직접적 간접적으로 부모의 영향과 더불어 사회경제적, 직업에 따른 영향을 받고 있고 성태도와 자녀 및 결혼가치관이 실제 결혼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된다.

결혼관에 대한 기존의 연구 [12] [9] [10] [17] 를 살펴보면, 사회변화와 더불어 결혼 가치관은 점차 변하고 있으나 부분적으로 남녀차별과 남녀 역할 분담에 대한 가부장적 고정관념을 고수하고 있어 정통성과 현대성의 양립으로 가치관의 혼재가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사회의 변화와 교육을 통하여 양성 평등사상은 고조되고 있으나 인간 내면의 가치규범은 사회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특히 남성위주의 가치관은 가정뿐만 아니라 사회에서도 갈등의 원인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바람직한 결혼관을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다.

자녀 가치관 중 자녀를 낳아야 사회적 인정을 받는다



거나 경제적 노후 의존, 부모의 꿈 실현, 가문계승, 사회적 의무와 성태도 간에는 유의한 순상관 관계를 보여 결혼을 하면 자녀를 낳아야 인정받는다라는 생각이 강하게 나타났다. 선행연구 [9]에서는 자녀 가치관은 부모의 출산동기에 영향을 주는 것과 가족 내에서 가져올 수 있는 보상적 가치를 찾아내고, 출산동기와 출산경향을 예측하기 위하여, 그리고 부모 자녀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자녀의 가치를 유추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하였다.

자녀관에 대한 기존연구를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전통적인 유교사상의 영향으로 남아존중 사상이 당연하게 받아들여지고 산업화와 핵가족화 이후에는 장남이나 아들에 의한 노후보장이 약해지고 있으나 여전히 부계 중심의 가계 계승이나 가문의 변명을 위한 남아선호 현상은 강하게 남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8]. 또한 선행연구 [12]에 의하면 부모 전환기에 있어서는 어머니들이 아버지들보다 자녀에 대한 긍정적 가치 인식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9]. 이와 같이 자녀 가치관은 세대 및 성별에 따라 확연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무절제한 성적 자극과 지나친 노출, 흥미위주의 대중매체 프로그램은 아직 판단의식이 정립되지 않은 학생들에게 부정적인 성태도를 형성하는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난 바 [20-24] 건전한 성태도는 성과 관련된 많은 문제를 예방, 극복하여 성건강을 증진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기 때문에 건전한 성태도 형성에 효과적인 성건강 교육의 실시가 시급하다고 하겠다.

본 연구결과에서 결혼 가치관에 있어서 대상자들의 성태도는 종교, 학년에 따라 차이를 보였는데 종교는 기독교일 경우, 학년은 1학년 일수록 2, 3학년 보다 성태도가 개방적이었다. 선행연구 [25]에서도 남자 대학생의 성태도가 개방적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일반적 특성에 따른 성태도에 유의하게 나타난 변수인 종교에서 비기독교 남자 대학생들이 기독교 남자 대학생보다 성태도가 개방적으로 나타난 결과는 본 연구 결과와 일치하지 않았다. 결혼 가치관은 개인보다 가족 관계 우선 시, 독신의 삶, 결혼생활 부담, 결혼나이 등에 따라 개방적인 태도를 보였다. 또한 자녀를 낳아야만 부부가 인정을 받는다고 생각하지 않을수록, 자녀를 경제적 노후 의존 대상으로 생각하지 않을수록 성태도가 개방적이었다. 연령이 높은 대학생이 연령이 낮은 대학생보다 성태도가 더 허용적이

며 마찬가지로 학년이 높을수록 성태도가 개방적이라고 한 선행 연구 결과 들 [11] [16] [25-29]은 본 연구 결과와는 차이를 보였다. 이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성에 대한 욕구가 증가하며 그에 비례하여 성에 관한 정보를 접할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고 가족과 부모의 영향력이 감소하게 되어 성에 있어서 허용적인 성태도가 나타난다고 보는 견해로 본 연구결과와는 맥락을 달리 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결과는 학년이 높을수록 성에 대한 책임감이나 판단력과 성행동에 대한 사회적 책임이 커지기 때문에 성태도가 덜 개방적인 것으로 생각된다. 선행연구 [26]에서도 학년이 높을수록 성태도가 개방적이라고 하여 본 연구결과와는 차이를 보였는데 학년이 올라갈수록 성에 대해 많이 알게 되면서 성에 관대해지고 개방적이 되어 간다고 하여 올바른 성태도 형성을 위해 교육의 필요성을 시사하기도 하였다. 또한 결혼 가치관에 따른 성태도는 자녀를 낳아야만 부부가 사회적 인정을 받는다고 생각하지 않을수록, 자녀에게 노후에 경제적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을수록, 자녀를 통해 부모의 꿈을 이루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 않을수록, 집안에 대를 잇기 위해 자녀를 둔다고 생각하지 않을수록, 자녀를 갖는 것이 사회적 의무라고 생각하지 않을수록, 자녀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을수록 성태도가 개방적임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선행연구 [4]에서 대학생들의 성과 결혼 가치관은 그들의 성태도 형성과 성행동에 영향을 미친다고 한 결과와 다른 선행연구 [10]에서 결혼 가치관 형성이 개방적이고 허용적인 성태도와 성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와 본 연구결과와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결국 성태도는 가정에서부터 사회문화적 배경까지의 상호적인 관계를 통하여 내면화되며, 개인이 속해있는 사회의 문화와 태도에 맞추어 사회화된다. 성에 대한 태도를 결정짓는 사회화는 어린 시절의 환경에서 어떤 경험을 학습하였느냐에 따라 근거를 두고 있으며 이는 일생동안의 성태도를 좌우한다고 할 수 있다.

성태도의 형성은 단기간 내에 변화되기는 어렵다는 점을 고려할 때 성에 대한 건전하고 올바른 가치관을 심어주기 위해서는 어릴 때부터 체계적이고 순차적인 교육 프로그램의 운영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생각한다. 아울러 대학교에서도 학생들을 대상으로 건강한 성태도와 가족 문화가 결합된 체계적인 가치관 교육프로그램이 수행된

다면 결혼에 대한 긍정적인 가치관과 올바른 자녀관을 정립하고 건전한 성태도가 형성될 것으로 생각된다.

## 5. 결과

본 연구는 K지역에 소재하는 2개 대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일반적 특성, 결혼 가치관, 자녀 가치관에 따른 성태도의 차이를 파악하고 대학생들의 성태도에 이들 변수 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려고 수행하였다.

본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성태도는 종교와 학년에 있어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연구대상자의 결혼 가치관에 따른 성태도와는 차이에서 성태도는 유의한 변수는 개인보다 가족관계 우선시, 독신의 삶, 결혼생활 부담, 결혼을 보통사람들이 하는 나이, 사귀는 사람과 결혼, 자유로운 성관계, 자녀가 있어도 이혼한다에 있어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본 연구대상자의 성태도는 자녀 가치관에 있어서 자녀를 낳아야만 부부가 사회적 인정, 경제적 노후 의존, 부모의 꿈 실현, 가문계승, 사회적 의무, 자녀의 필요성에 있어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본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성태도와 상관성을 본 결과, 역 상관관계를 나타낸 항목은 종교와 학년이었으며, 결혼 가치관을 성태도와 상관성을 본 결과, 순 상관관계를 나타낸 항목은 개인 보다 가족관계 우선시, 결혼 시기이었으며, 역 상관관계를 보인 변수는 마땅한 상대를 만나지 못하면 꼭 결혼할 필요가 없음이었다. 자녀 가치관을 성태도와 상관성을 본 결과, 순 상관관계를 나타낸 항목은 자녀를 낳아야만 부부가 사회적 인정을 받음, 경제적 노후의존, 부모 꿈 실현, 가문계승, 사회적 의무이었으며, 역 상관관계를 보인 변수는 부모로서의 가치, 자녀는 반드시 있어야 함이었다.

본 연구결과, 성태도와 결혼관, 자녀관은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이에 따라 저출산 고령화시대에 살고 있는 가임기 대학생을 대상으로 성태도 변화에 따른 결혼관과 자녀관을 위한 다양하고 건강한 접근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그 실천적 전략으로 올바른 성태도가 바탕이 된 결혼가치관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 REFERENCES

- [1] Sung, M. H. (2009). Relationship between Sex Role Identity Type, Sexual Consciousness, Sexual Behaviors and Sexual Impulse of University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Womens Health Nursing*, 15(1), 73-80.
- [2] An, Y. S., Jung, H. J. & Lee, J. S.(1997). A Study on Knowledge, Attitude, Behavior of College Students in Sex, *The Journal of Korean living science research*, 15, 137-154.
- [3] Kim, S. H. & Yoon, W. C.(2012). Sexual consciousness and attitude of male University students, *Journal of Korean Public Health Nursing*, 26(2), 248-257.
- [4] Higgins L. T. & Sun C.(2007). Gender, Social background and sexual attitudes among Chinese students, *Culture, Health & Sexuality*, 9(1), 31-42.
- [5] Lee, I. S., Jun, M. Y., Lee, Y. H.& Jung, M. S.(2000). Knowledge in Sex and Needs of Sex Education among Community College Students , *Journal of Korea community health nursing academic society*, 14(2), 382-395.
- [6] Park, J. H.& Kim, T.H.(2005). A Study on Sexual Behavior of University students, *Korean Journal of Family Welfare*, 10(1), 75-101.
- [7] Lee, S. S.(2006). Response to the low birth rate and an aging population Study: multidisciplinary research for future generations values of marriage and childbirth-friendly formulation.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Korean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the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 [8] Schneewind, K.(1991). Premarital Sexual experience among college female, *Family Relations*, 29, 353-357.
- [9] Jung, M. R. & Jang, Y. H.(2007). A study on the conception of the values of marriage, having child & job of university students and it's

- variables, *Education Research*, 41, 1-17.
- [10] Kim, G. Y. (2009). A Study on Factors Associated with Perceptions of Marriage Among Unmarried University Students,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Graduate School, Honam University. Daejun, Korea.
- [11] Lee, K. E. & Park, K.(2006), The effect of a sexual violence counselor program on Knowledge toward sexual autonomy and rape myths, *Korean Journal of Women Health Nursing*, 12(4), 301-307.
- [12] Yang, M. S.(1996). A Study on the Values of Marriage, Child and Sex Role between Male and Female College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34(2), 31-42.
- [13] Kwon, Y. H.(2010). The analysis of sexual ethical characteristics for elementary school students using the internet media. unpublished masters thesis, Daegu University.
- [14] Yoon, I. K., Jeon, S. K., & Park, S. K.(2009). A study on the efficiency of sex education program, *Journal of Korean Practical Arts Education*, 22(1), 73-92.
- [15] Moon, I.O.(1997). A study on the sexual Behavior of university students, *Education Research*, 1, 154-169.
- [16] Kim, J. H.& Kim, K. S.(2008). The Effects of College Students' Sexual Knowledge and Sexual Attitudes on their Sexual Behavior, *Korean Journal of Family Welfare*, 13(1), 123-138.
- [17] Shin, S. J., ·Hwang, E. H. & ·Kim, K. H. (2010). Development of educational model for establishment of university students' healthy views on marriage and child-caring.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Womens Health Nursing*, 11(2), 71-84.
- [18] Oh, S. H. Kang, H. S. & Kim, Y. H.(2010). Analysis of Rape Myths Acceptance and Gender Role among University Students, *Journal of Korean Public Health Nursing*, 24(2), 249-257.
- [19] Kim, H. S., Lee, J. H., Kwon, M. K., Kim, S. J., Kim, H. A., Bang, K.S.(2007). *Child Health Nursing*, Soomoonsa.
- [20] Go, J. G., Na, G. H., Ban, J. H., O, W. Y., Yun, J. M., Lee, S. Y., Cho, S. W., Ha, K. H., Song, E. J. & Lee, K. H.(2005), Nursing students and other university students majoring in Sexual Knowledge and Sexual Attitude, *Journal of Academy Ewha Nursing*, 39(1), 43-67
- [21] Go, U. L., Kwan, H. J., Park, I. S., Song, G. S., Jang, C. L., Faeng, S. Y., Lee, J. H. & Shin, H. W.(2008). Seoul Metropolitan four-year university students of Sex Knowledge and Attitude Study, *Journal of Academy Ewa Nursing*, 42(1), 35-48. (p.8에 인용됨)
- [22] Kim, Y. S. & Son, S. K.(2005). Effects of Sexual Knowledge and Consciousness on Sexuality Course on University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School Health*,18(1), 83-93.
- [23] Kim, S. M. (2003). Knowledge on Sexuality and Needs of Sex Education for College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Women Health Nursing*, 9(4), 489-498.
- [24] Moon, I.O.(2000). Co-ed high school sexual education intervention, *Journal of Korean Public Health Nursing*, 26(4), 414-425.
- [25] Kim, S. J., Lee, J. E., Kim, S. H., & Kang, K. A.(2012). The Effect of Sexual Education on Sex Knowledge & Attitude in Elementary School Students. *Journal of Korean Public Health Nursing*, 26(3), 389-403.
- [26] Woo, N. S. & Ka, Y. H.(2005). A Study on the of Sexual Knowledge, Sexual Attitudes and Sexual Behavior in Korean and American College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n Psychology*, 10(2), 113-133.
- [27] Yoo, G. S. (2005). Sexual Meanings and Motives for Intercourse among College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43(4). 125-139.
- [28] Choi, M. S. & Ha, N. S.(2004). A Study on

Knowledge, Attitude, and Experience in Sex and Sexual Autonomy of College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Women Health Nursing, 10(4), 318-330.

- [29] Han G. S. & Ham, M. Y.(2000). A Study on Knowledge, Attitude and Experience of College Students toward Sexual Behavior,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6(1), 115-131.

**주 영 희(Ju, Young Hee)**



- 2008년 9월 ~ 현재 : 김천과학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 관심분야 : 저출산연구, 역학, 건강증진
- E-Mail : [yhju@kcs.ac.kr](mailto:yhju@kcs.ac.kr)

**정 은 숙(Jung, Eun Sook)**



- 2013년 3월 ~ 현재 : 경북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 관심분야 : 지역사회간호, 노인보건, 산업장 건강증진, 학교보건
- E-Mail : [jes4420@naver.com](mailto:jes4420@naver.com)

**심 문 숙(Shim, Moon Sook)**



- 1998년 3월 ~ 현재 : 건양대학교 간호학과 부교수
- 관심분야 : 건강증진, 노인보건, 삶의 질
- E-Mail : [msshim@konyang.ac.kr](mailto:msshim@konyang.ac.kr)